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양식장 형망선
조례 개정 야간 조업 허용

부안군은 새꼬막 양식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4년 하반기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욱 주무관이 적극행정을 통해 제시한 양식장 관리선 사용기준 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추진됐다.

군은 효율적인 관리선 운영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리해 왔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양식장 형망선의 일몰 이후 사용이 제한돼 새꼬막 양식 어업인들이 수확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고인돌박물관, 3~6일
연휴맞이 특별운영

고창 고인돌박물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연휴 특별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5월 5일은 월요일로 평소 정기 휴관일이지만,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연휴를 맞아 개관하여 다양한 전시콘텐츠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고창군 고창읍에 위치한 고창 고인돌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청동기시대 생활사를 주제로 한 전문박물관이다.

상설 전시와 고인돌 유적지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탐방열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선사문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고창 고인돌박물관의 장점이다.

5월 연휴 기간에 열리는 고창 고인돌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연휴 동안 프로그램들을 선착순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삼고을시장, 5월 축제 열기 '후끈'

정읍시, 가정의 달 맞아 노래사랑 · 야시장 · 환급 '풍성'

정읍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삼고을시장에서 흥겨운 축제의 장을 펼친다. JTV 인기 프로그램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먹거리와 공연이 있는 야시장,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행사까지 연이어 개최해 시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먼저, 5월 7일 오후 2시에는 삼고을시장 평화주차장 특설무대에서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열린다. 전통시장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이 행사는 삼고을시장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북상인연합회, 삼고을시장 상인회, JTV전주방송이 함께 주관한다. 기념식

을 시작으로 시민 노래자랑, 초청 가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노래자랑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삼고을시장 상인회(☎063-534-6661, 666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심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코미디언 황기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가요제에는 가수 배일호, 요요미, 김미정, 강기대팀 등이 초청돼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또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자전거, 여행용 캐리어, 프라이팬 세트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이튿날인 8일 오후 5시에는 삼고을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어버이날 감사

삼고을 야시장이 열린다. 삼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흥구)가 주관하는 이번 야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풍성한 문화 공연으로 꾸며진다. 가수 조연비의 사회로 정주, 김아영, 나미소, 박종연 등 초청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드럼밴드, 산비탈장구 등 다채로운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은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삼고을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를 낮추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시름하는 지역 농가를 위해 정읍시가 농번기 인력 지원에 본격 나섰다

'5~6월 집중 지원 · 수시 지원'

정읍시, 농번기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총력'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시름하는 지역 농가를 위해 정읍시가 농번기 인력 지원에 본격 나섰다. 5~6월 집중 지원과 함께 재해 발생 시 수시 지원 체계를 갖추고, 24개 지원 창구와 3개 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해 농가 어려움 해소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번 일손 돕기에는 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힘을 합친다. 특히 독거농가,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농가와 과수·채소 재배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기상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도움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일손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시 농업정책과 또는 2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총 24개의 농촌일손돕기 지원 창구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

다. 시는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필요 시기와 장소를 파악해 적절한 자원봉사자를 알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읍농협, 정읍원에농협, 샘골농협 3곳에서는 인력증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인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가들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유용미생물 바로 배송 전용차량 서비스 시작

'고품질 농업생산 도움'

고창군이 유용미생물(혼합균, 광합성균, 고초균) 운송 전용차량으로 배송 서비스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용미생물 배송 서비스는 읍·면 단위 대상으로 월~금 주회 배송될 예정이며, 군주별 최대 100리터까지 미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배송 서비스는 소규모 농가(소작농)도 손쉽게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농업 현장에서의 접근성과 실용성을 더욱 높였다.

고창군에선 매년 약 3000여 농·축·어업 농가가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이용하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토양 유기물 분해 촉진, 병해충 억제, 항생물질 생성, 수확량 증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연작 장애를 완화하며, 토양건강 회복에 기여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창군 미생물배양장은 지난해 지역

농가에 950톤을 공급했고, 올해는 전국 최초 유용 미생물 읍·면 순회 서비스 시행으로 500톤 가량이 늘어난 1430톤을 예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석지 채용신 테마전 8월 3일까지 개최

정읍시립박물관이 지역 대표 서화가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1890~1941)의 작품 세계를 통해 정읍의 인물과 역사 시대정신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테마전을 8월 3일까지 개최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조선 말기 어진화사로 명성을 떨친 채용신의 눈을 통해 정읍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4월 28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시의원, 유물 소장자·후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채용신이 1918년에 그린 '김도연 초상'의 기탁식이 함께 열려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조선 영조 대 의금부도사를 지낸 김도연(1684~1735)의 후손인 김준기 선생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 활용을 위해 귀중한 작품을 박물관에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테마전은 두 개의 전시실에서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1층 서화실에서는 무성서원의 제향 인물과 태인 의병 활동을 이끈 면암 최익현 관련 작품이 중심을 이룬다. 보물로 지정된 '최익현 초상'과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청양 최익현 안상도'를 비롯해 무성서원의 대표 제향 인물인 '최치원 초상', 병오창의 관련 인물 '김기술 초상', '김직술 초상' 등이 관객을 맞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의회, 제361회 임시회 마무리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 조례안 등 의결

부안군의의회(의장 박병래)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의회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22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방문 과정에서 의원들은 △부안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의 테마와 상징성 미흡, △해탈마루 보행교의 통행불편 및 안전상 위험요소, △솔포 노을빛정원 파크골프장과 구진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의 전반적인 부실 문제, △위도 게이트볼장의 다양한 체육시설로의 활용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해당 부서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부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8건을 원안 가결 처리하고, 부안군 출생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출생인 구별 기준 모호, △애향심 고취라는 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 지원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있었다.

박병래 의장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군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